서아내로 새미서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2022년 8월 · 제03호



Contents

01 조운 게시판

02 사는 사람 조운 사람
맛있게 뜨겁고, 말끔하게 뜨거운
1, 2층 사장님의 특별한 동행

06 同同街 마주하기
스마트한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
문화복합공간 지하도상가에서
무더위를 날리세요!

11 좋은 소식 1

12 우리도 멋지게
경주 황오동에서 춘천의 미래 발견하다

14 조운人 한마디
16 좋은 소식 2
17 조운인별
18 그림조운동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2년 8월
제03호

창간일 4월 15일
발행일 8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유명화
일러스트 하고고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디자인 쿠담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5

상상아트홀리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장소
춘천 지하도상가 일대

내용
댄스, 밴드, 연극, 공공미술,
요가·명상, VR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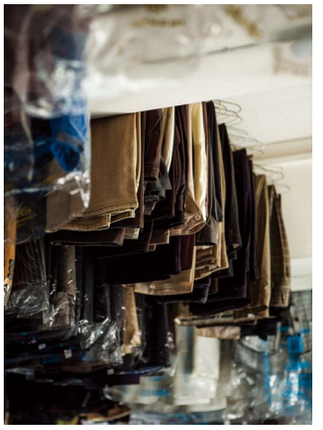
일자
8/6, 8/13, 8/20 – 교육 및 체험
8/27 –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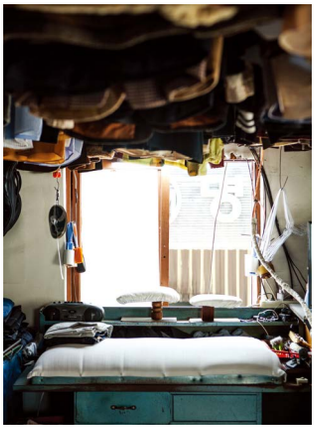
조성미
시민기자



새명동에서 50여 년을
일한 김승복 씨와 앞으로
새명동을 꾸려갈 조윤숙 씨.
새명동을 오래 지켜온
어르신이 옆에 있어 든든하다는
1층 조윤숙 씨와 성실하기가
그만인 이와 지내서 좋다는
2층 김승복 씨이다.







맛있게 뜨겁고, 말끔하게 뜨거운 1, 2층 사장님의 특별한 동행

새명동의 현대식 건물 사이에 색 바랜 2층 건물이 있다. 1층에서는 보글보글 다슬기해장국이 끓고 2층에서는 다리미가 뜨거운 김을 뿜으며 왔다 갔다 한다. 1층 해장국집에 가면 지끈지끈 머리 아픈 인생의 숙취가 싹 풀리고, 2층 세탁소에 가면 살면서 묻어나는 인생의 얼룩이 쏙 빠진다.

세탁 외길 인생!
우리 삶의 주름을 쫙 펴주세요!

조양세탁소 | 시청길 12번길 17-5 | 033-253-3911

2층 '조양세탁소'는 세탁소의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 오래되었다. 열여덟 살에 고향을 떠나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시작한 세탁일을 일흔 살이 넘어서까지 천직으로 여기며 살게 될 거라고 젊은 시절 김승복 씨는 생각이나 했을까.

예전에는 아침에 문을 열면 밤 10시, 12시까지 일했다. 주변이 상가, 은행, 회사가 늘어선 번화가라 직장여성이 세탁소를 많이 찾았다. 다른 세탁소도 주변에 있었지만 IMF를 버티지 못했고, 지금은 조양세탁소만 남았다. 욕심이라면 4~5년 더 일해서 세탁소를 번듯하게 키우고 싶지만, 지금은 욕심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때이니 여든 살까지만 오늘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 전에는 다루기 힘든 옷감이나 공장에서 나염이 잘못되어 나오

는 옷들이 있어 세탁 후 이런저런 시비에 얽히기도 했다. 어떤 이는 옷을 잘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하는가 하면 간혹 세심함이 넘치는 손님은 눈으로 가려내기 힘든 점까지 찾아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사 가서도 세탁물을 들고 찾아오는 정 많은 고객도 있으니 그것이 한눈팔지 않고 걸어온 세탁 인생의 보람이다.

50여 년을 한 건물에서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다. 아내는 지금도 가게와 집을 오가며 삼시 세끼를 맛깔나게 챙겨준다. 귀찮아하지 않고 정성으로 차려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다. 곡선 같은 남편과 직선 같은 아내가 만나 딸 둘을 잘 키웠고 이제 아내는 수영장으로, 남편은 테니스장으로 각자 취미생활을 하고 때론 같이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긴다.

열여덟 살에 횡성을 떠나 조양동(지금의 조운동)에서 세탁일로 50년을 보낸 김승복 씨. 머리가 희끗해진 주인은 어린 두 딸과 여름날 강가에서 함께 웃고 놀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 삶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들려준다. 세월이 흐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인생살이의 진리…. 세월이 가면 이런 인생 해법을 나도 깨닫게 될까?



또순이의 쉼표 없는 24시!
이제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소양강다슬기 | 시청길 12번길 17-5 | 033-242-9533

새명동 골목에 한 번 맛보면 시원함에 바로 매료되는 '소양강다슬기'가 있다. 술이라도 한잔 걸친 다음 날은 더 반가울 이곳에는 18년째 매일 탕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따끈따끈하게 계란말이를 후딱 만들어 정성껏 차려내는 철의 여인이 있다. 홀로 4남매를 키우고 식당을 유명 맛집으로 발전시킨 주인장은 이웃이 지어준 별명 '또순이'와 똑 맞아떨어진다.

또순이 조윤숙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고향을 떠나 아무 연고 없는 춘천에 터를 잡고 소양강다슬기를 열었다. 전라도 손맛이 담긴 엄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란 덕분일까? 손님들이 맛있다며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고,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식당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사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곁에는 4남매가 있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슬기를 까고 탕을 끓이고 김치를 담갔다. 아이들 학원 보낼 여유가 없어 직접 공부를 해서 가르쳤다. 엄마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고 아이들은 용돈기입장과 일기를 꼬박꼬박 썼다. 그래서인지 4남매 모두 경제관념이 철저하다. 너무 빨리 철난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여건이 나은 대학을 스스로 찾아간 아이들은 외국인 회사 지점장, 간호사, 공무원이 되었고 듬직한 큰아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젊은 감각으로 해장국집을 키워가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 새벽같이 가게로 가서 장사 준비를 끝내고 잠시 새벽기도를 다녀와 7시에 식당 문을 연다. 음식 재료인 다슬기의 특성상 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료 공급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홍천강 상류 다슬기 채취권을 사서 도매업까지 하게 되었다. 그곳 다슬기가 색깔도 파랗고 단맛도 더 좋다. 조윤숙 씨는 이제야 여유라는 단어를 슬쩍 떠올려본다. 유년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던 소녀에서 4남매를 둔 가장으로, 소양강다슬기 주인으로 18년을 너무 바쁘게 보냈다. 여유가 주어진다면 한비야 씨처럼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데…. 그녀는 원하던 차 한잔의 여유를 갖게 되더라도 무언가를 더 배우고, 새로운 일을 찾아 더욱더 도전할 것만 같다.



스마트한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

문화복합공간 지하도상가에서 무더위를 날리세요!

허준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장







강원도에 지하도상가는 춘천과 원주 두 곳에 있다. 원주 지하도상가가 민방공 대피 시설 목적으로 지어졌다면, 춘천 지하도상가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자동차가 늘어난 것이 교통난의 주원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가 해마다 100만 대 이상씩 늘어났다. 춘천 지하도상가를 착공한 1994년에는 전국에서 차량이 740만 대 등록되었으며, 여기에 춘천은 지금까지 인구수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이 최고로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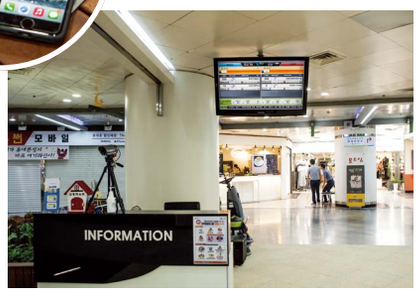
지하도상가가 있는 춘천 중앙로는 교통량이 많고 인구 이동이 가장 잦은 곳이다.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춘천시청, 강원도청, 춘천교육지원청 등의 관공서와 춘천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성수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등의 학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중앙시장, 제일종합시장, 명동상가 등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자동차로 교통 문제가 늘 끊이지 않던 곳이다.

중앙로 지하도 건설에 대한 첫 논의는 1989년 춘천시번영회에서 행인의 안전과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자 지하보도와 지하주차장 건설을 춘천시에 건의한 데서 비롯했다. 이어 1990년 춘천상공회의소에서 춘천 지하보도 및 상가 건설을 춘천시에 건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시가 지하상가 조성 계획을 세웠고, 1991년 12월 춘천시의회에서 지하상가 조성 계획을 의결하였다. 1993년 춘천시에서 시행사를 모집하고 1994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9월 분양까지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춘천 지하도상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 춘천 지하도상가는 도청로, 중앙로, 남부로 세 방향으로 보도(步道)가 길게 뻗어 있으며, 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다. 보도의 전체 길이는 1,013m이고, 보도 양쪽으로 점포 352개가 들어서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352면 조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의 지하도상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패션, 젊음, 사람,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등 5개 주제로 구역을 설정하였다.









젊은이를 위한 대표적 문화복합공간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휴식처로 자리 잡은 지하도상가에 문화를 입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하도상가는 명실상부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상상공원에서 합창단, 서커스 등의 공연이 열렸으며, 청소년 참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디어 교육용 컴퓨터 장비와 촬영 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변신 또한 진행되고 있다.

지하도상가에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약 300개 점포가 문을 열고 있다. 유행을 앞서는 의류와 액세서리, 스마트폰 판매 점포가 늘어서 있으니 젊은이들이 패션과 유행을 이끌어나갈 일번지라 해도 어디 하나 밀릴 것이 없다.

지하도상가의 미래

지하도상가는 과감한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사계절 언제나 시민의 휴식처로 애용되며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언제든 가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공연이 활기차게 펼쳐지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변신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사랑하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으니, 모쪼록 우리 시민께서는 꼭 다녀가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시민의 휴식처 젊은이의 문화복합공간 '상상공원'

중앙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춘천의 사방에서 접근하기 쉽고 지하도상가는 출입문이 곳곳에 있어 내부로 드나들기도 수월하다. 지하도상가 휴식에서 중심은 만남의 광장이다. 만남의 광장 중앙에 있던 분수대는 20년 이상 시민에게 휴식처로 사랑받았다.

지금 만남의 광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분수대를 없애고 초록색 카펫이 넓게 깔린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가족 단위는 물론 젊은 층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곳에 LED 조형물과 벽화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 되었고, 광장에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로 조경 공사를 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의 대표 휴식처 '상상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공원'에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편의시설도 설치해 휴식처의 품격을 높였다. 의자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자동가습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모니터를 놓아 시내버스 노선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휴게 공간에는 '공유책방'이 개설되어 시민들이 기부한 책도 빌려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예은 코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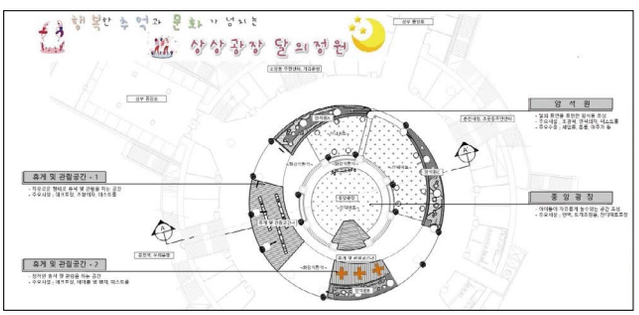
지하도상가, 상상 가득한 공간으로!

지난 5월 완공된 춘천 지하도상가의 새로운 랜드마크 '상상공원.' 예전에 분수대가 있던 중앙광장에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한 상상공원을 소개합니다.

지하도상가 중앙 분수대를 기억하나요? 분수대는 1999년 춘천 지하도상가 개장 이후 20년 넘게 중앙광장을 지켜왔습니다. 터줏대감의 존재는 든든했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넓은 중앙광장을 활용하기 어려웠을뿐더러 조명이 어두워 무겁고 칙칙한 느낌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상가 이용객 외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춘천 지하도상가만의 특색을 살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중앙광장은 상권의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춘천시청, 북쪽으로는 강원도청이 있어요. 500m 이내에 은행, 주거지역, 학교가 있어 지상부의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명동 닭갈비 골목, 춘천 낭만시장, 낙원문화공원 등 주요 시설도 주변에 있고요. 그들을 지하도상가로 유도할 매력적인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의 매력을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상상공원은 단순한 판매 중심 상가에서 벗어나 오가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춘천 시민의 지하도상가 방문 욕구를 높이고 문화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기존 광장 내 분수를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더해 푸릇푸릇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어요. 목재 데크를 이용해 휴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엽식물 등을 심어 자연적 경관을 연출했고요. 초승달 벤치와 토끼 조명이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중앙광장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놀 수 있는 잔디매트로 조성했어요. 앞으로 상상공원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 기획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인 주민 기획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순항 중입니다. 작년 말 진행된 주민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따라 요선동, 지하도상가, 새명동의 사업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습니다.

요선동에서는 '요선블렌딩'이라는 주민 주도 골목 축제를 기획 중입니다. '블루오션'에서 영감을 얻은 '블루요선'이 그 첫 번째입니다. 공예 체험, 야외 공연, 푸드마켓 등이 있다고 하니 8월 20일 요선동으로 놀러 오세요.

지하도상가에서는 향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탤 상인들의 단합 여행 '오늘 점 찍으셨나요?: 점-점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소모임 두 번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한 뒤 떠났기에 어색함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새명동은 현재 주민기획단이 여러 차례 워크숍을 하며 행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중 시청광장에서 열릴 새명동 상권 축제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세요.

성현아 인턴의 조운 먹킷리스트-여름

8월은 여름이 절정인 때죠.
더위를 이겨내고 싶다면 조운동네로!

- **새명동 육회비빔냉면** 입맛을 돋우는 매콤달콤 비빔소스
- **새명동 짬뽕** 이열치열 얼큰한 뚝배기 짬뽕
- **요선동 삼계탕** 한국인 대표 보양식
- **지하도상가 콩국수** 달콤고소 시원한 여름 별미

멋지게 도시를 재생한 이야기 ③

경주 황오동에서 춘천의 미래 발견하다

이예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진 제공_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황오 프론티어 밸리는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앵커시설이에요. 황오 작은도서관과 경주시 청년센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경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 대출, 지식 공유 등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특히 도시재생 독서 토론, 책 읽는 신라인들과 같은 독서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답니다. 문학적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이에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청년센터인데요. 청년 맞춤형 상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의실, 크리에이터실, 공유 주방, 쉼터, 대강당 등의 공간이 있어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이 가능해요.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소통 광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대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해 2월 '황오 축제학교' 교육생을 공개 모집하여 약 한 달 반 동안 교육을 진행했어요. 축제학교는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주민기획단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에요. 2021년 11월 우리 조운동 현장센터가 진행한 조운 플레잉 씽킹페스타 '조운동네에서 뭘 해야 좋다고 소문이 날까?'와 비슷한 취지, 내용의 프로그램이어서 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몹시 탐났던 황오동만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황오 플리마켓'이에요. 황오 축제학교 수료생을 필두로 경주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켓인데, 총 40회 진행되었대요. 아시다시피 조운동네 역시 원도심 상권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황오 플리마켓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일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호에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슷한 점도 배울 점도 많았어요. 이를 자양분 삼아 더욱 성장하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멋지게!

새명동, 요선동, 지하도상가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300여 개의 가게를 품은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 권역.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상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민혁 학생기자
조성미 시민기자

새명동

1999년부터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자주 보고 살지만, 그래도 지면을 빌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인사드려요. 그리고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 다 좋아졌으면 해요. 다 잘되기를 바라요.
정통 여성복 **꼼빠니아**
시청길10번길 13 / 255-7587

모두가 행복한 우리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다라멘에도 라멘 드시러 많이 오세요. 소식지 가져오시면 교자를 서비스로 드릴게요~
혼밥 환영하는 춘천 라멘집 **혼다라멘** 춘천시청점
옥천길9, 1층 / 256-7890





인터넷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옆의 의정부부대찌개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식당이야 김치는 100% 국산이죠. 칼칼한 김치에 바지락의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 최고예요!
김치가 맛있어 소문난 맛집 **이조바지락칼국수**
시청길12번길 18, 1층 / 241-0498

우리 모두 힘들고 지쳤던 2년여 시간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명동 밝히는 편의점 **GS25 춘천명동점**
아침길14, 1층 / 253-7442

연령불문! 남녀노소! 저희 동백꽃 간판 보면 저절로 들어오고 싶어지는 명동다방입니다. 늘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하며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유비라떼가 맛있는 **명동다방**
아침길9, 1층 / 910-1087



무더위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 나시자고요^^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선도하는 기업 ㈜**민엔지니어링**
시청길16, 3층 /242-2322

요선동

코로나요? 영향이 엄청났죠. 주변 상가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를 절반쯤은 이겨냈으니 더 웃으면서 인사하고 즐겁게 지내요.
차원이 전혀 다른 체코(생)맥주 **체스케피보**
서부대성로44번길 3-2 / 255-5088

단골이 찾아와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됐어도 문 열어요. 요선동은 인심이 좋아요. 편하고 고향 같고 그렇지요. 마음만은 인심 좋은 그 시절에서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합심해서 이겨냅시다.
예술가들의 단골집 **평창이모집**
서부대성로44번길 5-3 / 255-6329



이전 같은 어려움은 약간 줄어든 느낌이에요. 힘드시겠지만 같이 잘 이겨냅시다!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카페하늘**
서부대성로41번길 18-2
256-2316



문구류, 리빙소품, 패브릭, 에코백, 파우치 등 버거핀의 컬러감으로 러블리하고 퍼니한 리빙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컬러를 찾는다면 버거핀!
러블리&퍼니 데일리 소품디자인 브랜드 **버거핀**
서부대성로44번길 19번지, 1층 / 010-9932-0306



계곡이나 바다에 발 담그고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세요~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 **J기타&우쿨렐레**
소양고개길60 / 010-5762-7582



모든 분, 소원 다 이루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합시다!
꼼꼼하게 찬찬히 옷 만지는 **대일명품수선**
도청로 다-58호 / 033-257-3201

더위에 무탈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좋은 기운 듬뿍 넣는 카메라 **스튜디오 봄내**
도청로 다-56호 / 033-256-8570



큰애 시집보내느라 경황없이 살았어요. 단골손님들이 찾아주셔서 (둘째 딸 이름을 가져온) 노엘도 무사히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손님이 생기기를 바라고, 우리 지하도상가가 좋은 소문으로만 알려져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춘천에서 유일한 스카프 전문숍 **노엘**
중앙로 나-01호

다들 지치셨을 테지만 힘내세요. 그리고 지난 공연에 아이들, 가족이 많이 참여해 간만에 지하도상가에 활기가 돌았어요. 문화공연을 더 다채롭게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지하도상가는 공기 질을 측정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니 더위 피해 지하도상가로 많이 찾아와주세요.
캐주얼하고 세련된 남자 옷 **하루키**
중앙로 나-35, 36호 / 010-8942-6568

아침에 못 벌면 저녁엔 벌리고, 아침에 벌면 저녁엔 안 벌리고 하는 게 장산데, 코로나가 이런 걸 다 없앴어요. 요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찾아와주는 단골손님이 있어 오늘도 여기 있지요. 빨리 나아져야죠….
편안하고 예쁘다 중년여성복 전문숍 **빌보드**
도청로 다-39, 40호

오십 넘으면 다른 걸 해봐야지 했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우리가 늙은 거야. 하하하. 젊은 이웃들은 힘들더라도 일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 꿈을 향해 열심히 자맥질하세요. 그래야 사는 게 즐거워져요.
장난감, 간식거리 알차게 있는 **알마트**
남부로 마-01(1)호

커피 재료, 추출하는 기술 등 맛있는 커피를 위해 모든 걸 신경 써요. 주문에 맞춰 구수하게 순하게 맛있고 깨끗한 커피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픈 기념 할인행사를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상상공원 옆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 **은하수커피**
광장 다-06호



예술의 거리에 있는 천아트공방에서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전후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탈색되지 않아요. 일대일로 수업하는 원데이클래스 해요. 천아트로 생활미술을 즐겨보세요.
천아트 작가의 공방 **시원솜씨**
남부로 마-53



상상 아트 홀리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상상 아트 홀리데이〉가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1주 차에서 3주 차까지는 교육과정이며, 4주 차에는 결과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상 아트 홀리데이〉는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춘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증대하고, 예술교육·체험을 통해 춘천 지하도상가의 이미지를 높여 방문객을 확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춘천 지하도상가에 있는 상상언더그라운드 시설을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댄스, 밴드, 연극, 공공미술, 요가·명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중간 친구들의 쉬는 시간조차 알차게 만들어줄 VR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8월 27일, 3주 동안 함께한 학생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발표회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됩니다. 투표와 추첨으로 상품 증정,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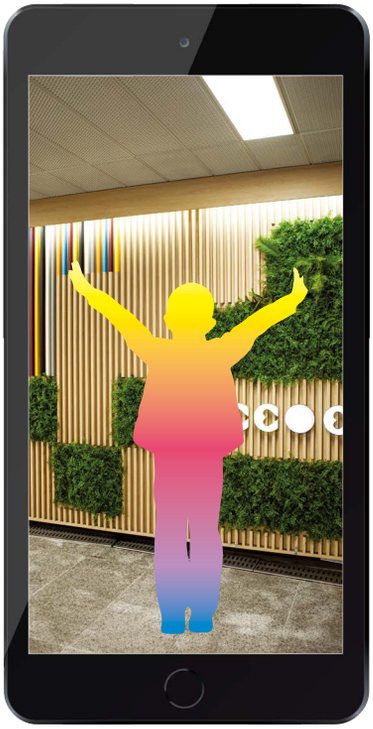
〈조운동네 공연배달〉 여름 시즌이 찾아옵니다. 지역 내외 전문·아마추어 공연예술과 놀이 체험, 영화, 디제잉 파티 등 크리스마스 같은 행복과 설렘을 느끼러 조운동네로 오세요.

조운동네 주민들의 거점 공간 **조운웰컴센터 지하 마을극장의 대관을 준비 중**입니다. 공간의 목적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8월 29일 대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성현아 인턴**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선동 새명동 지하도상가

조운동네 곳곳에 숨어 있는 스팟을 찾아라!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운동네 인스타 인증샷 이벤트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미션!
사진 속 장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기간	2022. 9. 1(목) ~ 2022. 9. 30(금)
당첨자 발표	2022. 10. 1(토)
상품지급	2022. 10. 1(토) 이후 순차 지급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10명)

유의사항
조운동네 인스타그램(**@joundongne**) 태그 필수!
당첨 결과는 조운동네 인스타그램에 공지되며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조운동

표기한 휴게공간은 전부 지하도상가예요!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은 요선동·새명동·지하도상가 상점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춘천 원도심입니다. 〈그림조운동〉을 활용해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도청로 쉼터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앞에 브릭놀이터와 작은 휴게공간, 모유수유실이 있습니다.

남부로 쉼터

'공유 책방'과 '갤러리 상상언더', 예술인 쉼터가 있습니다. 유명 화가에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유 책방'에서는 시민들이 기부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상공원 인근 출입구 계단 옆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남부로는 예술이 살아있는 지하도 거리입니다.

중앙로 쉼터

청소년을 위한 댄스·밴드·연극 연습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배움실이 있습니다. 춘천 시민이 춘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 가까이에 청소년 쉼터와 브릭놀이터가 있습니다. 상상공원으로 가는 길에도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상상공원 쉼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앉음벽, 테이블, 벤치 등이 있습니다. 상상공원을 중심으로 한 광장로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숍과 피자, 버거 상가가 있고 민원발급기, 현금인출기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국토교통부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뉴딜사업